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강진군에 울려 퍼진 아기울음

출산·육아 정책 속 '두 번의 인연' 더해져 더욱 뜻 깊어

강진군에 2026년 1월 1일 병오년 적 토마의 시작을 알리는 새해둥이가 탄생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1월 1일 오후 1시57분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며 울며 첫 출생아가 태어났다. 새해의 첫 울음소리는 저출산 시대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주민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산모 김보라씨는 "태명은 '다복이'로, 많은 복을 타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의 바람처럼 다복이는 새해 첫날 강진군에 기쁨과 희망의 상징으로 찾아왔다.

특히 이번 새해둥이의 탄생은 가족 간 특별한 인연으로 더욱 의미를 더한다. 해당 산모의 시누이 역시 이달 안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한 가족에서 새해를 맞아 두 명의 새 생명이 연이어 태어

날 예정이다. 이 가족은 2023년에도 같은 해에 동시 출산을 경험한 바 있어, 다시 한 번 이어진 생명의 인연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또한 새해둥이 다복이의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강진에 오랜 기간 거주해 온 주민으로, 이번 출생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지역과 세대를 잇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오랜 시간 지역과 함께 해 온 가족에게 새 생명이 더해진 이번 새해둥이의 탄생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진'이라는 메시지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강진군은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비롯해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연계, 임신·출산 건강관리 서비스 등 출산 전·후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와 미이용 산모 모두에



게 산후조리비 16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해 출산 가정 간 형평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새해둥이 다복이의 탄생은 강진군 모두에게 큰 기쁨이자 희망"이라며 "한 가족에서 이어지는 두 번의 동시 출산처럼, 출산이 축복이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장흥군, 2026년 1호 고액기부자 탄생

선종선·권병욱 남도어가 대표, 5백만원 고향사랑기부

장흥군은 2일 선종선·권병욱 ㈜남도어가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원을 기탁하며 2026년 신년 첫 고향사랑기부자 1호 고액기부자의 주인공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2026년을 여는 장흥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고액기부 사례로, 새해의 시작과 함께 지역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하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알리는 상징적인 출발점이 됐다.

선종선·권병욱 대표는 "새해를 맞아 고향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에 참여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에 희망을 더하고, 많은 분들의 공감과 참여로 이어지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군 관계자는 "2026년 신년 첫 고향사랑기부이자 1호 고액기부 5백만원을

기탁해 주신 것은 매우 뜻깊은 쾌거"라며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연간 2천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최대 44%로 확대되어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크게 강화됐다.

장흥군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출향 향우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왕조1동에 실버카·장학금 기탁

직원 성금 모아 거동불편 어르신·저소득 아동 가정에 따뜻한 나눔 실천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병원장 정재윤)은 지난달 30일,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실버카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은 순천병원 직원들이 성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 아동가정에 직접 전달되어 의미를 더했다.

정재윤 병원장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역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으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왕조1동장은 "매년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과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해주시는 후원은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은 2016년부터



왕조1동에 성인용 보행기와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기탁해오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건강케어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함평군 나산면, 민관 협력으로 위기가구 집중 지원 나서

나산면 복지기동대·119생활안전순찰대, 겨울철 생활 안전·복지 강화

전남 함평군 나산면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과 안전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함평군은 2일 "나산면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지난달 29일 동절기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겨울철 주거 여건이 열악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한파와 화재 등 겨울철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협력 활동은 복지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으로, 겨울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과 안전 의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화재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생활 불편 사항을 살피는 한편,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화재 대피 마스크, 미끄럼방지



매트, 연기감지기, 소화기 등으로 구성된 안전 꾸러미를 전달해 생활 안전 수준을 한층 높였다.

정석 나산면장은 "겨울은 독거 노인과 1인 가구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특히 높아

지는 시기"라며 "주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를 비롯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훈 기자



광양읍 농촌지도사회, 광양읍에 후원금 지정기탁

지역 청소년의 의료비 지원 목적... 연말 온기나눔 실천

광양읍 농촌지도사회(회장 허정태)가 지난 24일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120만 원을 광양읍 청소년의 중환 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 김미란, 민간위원장 송근배)에 지정 기탁했다고 광양읍이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광양읍 사회단체 한 회원의 자선 사연을 접한 농촌지도사회가

지역 아동의 적절한 치료를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전 박상우 점동장이 후원한 쌀 10kg 3포도 함께 전달됐다.

허정태 회장은 "회원들이 뜻을 모아 지역 학생의 건강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후원을 계기로 타 지역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찾고 지원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근배 민간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아픈 지역 아동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 주신 회장님과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협의체도 위원들과 함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란 광양읍장은 "소중한 후원금은 지역 청소년이 적절한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하게 자라는데 쓰이도록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광양읍 청소년의 행복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신선호 기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임신·출산 관련 제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 시술 (보조생식술) 급여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